

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, 농촌 집 수리

윤 이수빈 기자 | 승인 2024.09.05 23:08



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(지사장 서정훈)는 지난 4일 김해 생림면에서 농촌 집 고쳐주기 사회공헌활동을 했다고 밝혔다. 대상 가구는 고령 농업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으로 노후 상태가 심각해 외부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. 이에 서정훈 지사장 외 14명의 직원들은 집기 청소, 자재 나르기, 폐기물 정리 등 주변 환경을 개선했다. 서정훈 지사장은 "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ESG 경영을 실천하겠다"고 말했다.

저작권자 © 경남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이수빈 기자